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총무원장 스님, 도담하우스 방문
미혼모자 격려 ... 지원금도 전달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이 계속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도담하우스를 직접 방문해 미혼모들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8일 ‘자비 나눔’의 일환으로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도담하우스(원장 허진호)를 찾았다. 총무원장 스님은 “미혼모들을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해 주어 고맙다”면서 “원력이 대단하다”고 치하했다. 도담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깨달음과 나눔의 이매옥 이사장은 “바쁜 일정에 도시간을 내어 방문해주신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불교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허진호 도담하우스 원장의 시설 현황 브리핑을 받은 후 양육실과 교육실(생활실)로 자리를 옮긴 총무원장 스님은 미혼모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선물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미혼모와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 와서 다행이다”면서 “아이들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아이들을 직접 안아주고 볼에 입을 맞춘 뒤 복주머니와 단주를 엄마들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8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도담하우스를 방문해 미혼모와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른쪽은 허진호 도담하우스 원장.

게 선물했다. 미혼모 최수진(가명)씨는 “큰스님이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큰 힘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아이들을 더욱 신경 써서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실(생활실)로 이동한 총무원장 스님은 바느질 자수를 익히고 있는 미혼모들을 격려했다. 자비나눔 기금 1000만원을 이매옥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미혼모들에게 복주머니와

단주를 선물했다. 미혼모들은 직접 바느질해 만든 선물을 총무원장 스님에게 전했다.

도담하우스는 사단법인 깨달음과 나눔이 2014년 10월 다가구 건물을 매입해 2015년 10월28일 개원했다. 현재 엄마 8명과 아이 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개원 이후 지금까지 총 12명의 미혼모가 입소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종회의원·부실장 겸직금지 없어지나

205회 총회 종헌개정안 제출 계획
권력집중·특권확대 비판여론 가능성

총무원 부·실장 인사난 해소를 위해 종헌에 명시된 중앙총회의원의 중앙총무기관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종헌개정안이 중앙총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중앙총회의 권력 집중과 중앙총회의원 특권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총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중앙총회의원의 겸직금지를 담은 <종헌> 제35조에서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총무원(부·실·국장)을 삭제한 종헌개정안을 확정했다.

현행 <종헌> 제35조1항은 “중앙총회의원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위원, 법

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총무원(부·실·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의 주지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헌종법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총무원(부·실·국장)을 삭제하고 호법부장을 명시하는 안이다.

이같은 안을 제안한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조계스님은 “종도들로부터 중앙총회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본사주지와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주지를 겸직할 수 없도록 했고 징계조항도 3분의 이상에서 과반수 동의로 낮추는 등 중앙총회의원의 특권을 낮추는 데 노력해 왔다”며 “중앙총무기관 부실장 겸직

조항을 삭제한다면 지난번 인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인사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종헌종법특위는 논의 결과 중앙총회의 임명동의를 거치는 호법부장을 제외한 중앙총무기관 부·실장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은 법제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3월15일 열리는 제205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종헌종법특위는 또 임기가 만료된 원로위원에 대해 자등으로 명예원로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한 원로회의법 개정안을 205회 임시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배제된 창건주·분원장, 전국 분원장회의 축구

선미모, ‘선학원 발전방안 모색’
자료집 배포 세미나·공청회 준비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이하 선미모, 상임대표 법상스님)이 “탈종단화 행보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단순히 이사회 의결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며 전국분원장회의 개최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선미모는 지난 17일 선미모 사무실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자료집 제작 및 배포, 선학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나 공청회 개최 등을 결의했다. 선미모는 비공개회의 이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선학원 이사회에서 탈종단화 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전국분원장회의 개최를 촉구한다”며 “탈종단화가 재단 미래를 위한 조치라면 더더욱 전국분원장회의를 통해 창건주 및 분원장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선미모는 또 “재단과 종단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정작 분원장들은 자세한 정보 없이 논의에서 배제된 상황”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만화를 활용한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월경에는 공청회도 개최한다. 선미모는 “탈종단화를 둘러싼 정치적 논의를 벗어나 선학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제설정과 진행방식 등은 외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사회현안 열쇠, 3·1운동 정신에 있다”

천도교 박남수 교령, 종무원 특강
“세계평화와 국민통합에 가장 중요한 ‘상생’, 불교 가르침과 맥 같이해”



천도교, 개신교 지도자가 각각 11명씩 참여하기로 했지만, 개신교계 내에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각각 11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인원

“2019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다. 남북문제 등 사회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3·1운동 정신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평화와 국민통합을 위해 불교와 개신교, 천도교가 손잡고 전 국민적 민족운동을 일으켰던 그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다.” 박남수 천도교 교령(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이 제97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연 종무원 특강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천도교 최고 지도자인 박남수 교령은 ‘3·1운동 정신과 불교의 가르침’을 주제로 3·1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불교 역할, 오늘날 3·1운동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강의를 했다. 박 교령은 특히 “3·1운동 정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의 정신이며 이는 불교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도 불교의 포용력과 스님들의 노력 덕분에 발표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교령에 따르면 민족대표 33인에 불교와

구성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 교령은 “불교의 과감한 증대로 개신교계가 16, 이에 맞춰 천도교가 15, 불교는 용성스님과 만해스님이 최종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교령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즘 학생들은 용성스님이나 만해스님,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도 중요하지만, 3·1운동에 있어서 민족정신을 되살린 불교 역할을 제대로 알려나가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인류 평화를 위해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자유, 평등, 평화, 세계화 정신 등을 되새겨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특강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박남수 교령에게 특별 요청해 마련됐으며, 중앙총무기관 부실장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한반도 항구적 평화 위해 힘쓸 것”

조계종, 북핵문제 관련 논평 발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최근 불거진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남과 북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8일 대변인(기획실장 해일스님) 명의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남과 북은 영원히 함께 번영해 나가야 할 한

민족”이라며 “조계종은 남북의 공존과 상생을 저해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개발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마저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화를 통한 실현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계종은 “대립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한반도에 항구적으로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하며 우리 종단 역시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정공스님 거창 초은암	 성관스님 밀양 청하암	 상옥스님 서울 향림사	 성일스님 옥천 서광사	 도일스님 대전 태전사	 동욱스님 서산 개심사	 묘정스님 양평 보림사	 원일스님 홍성 용주사	
본·말사 주지 인사 (2월 17일 종무회의)				 성진스님 김천 해운사	 법민스님 대구 파계사	 성수스님 청도 용천사	 지율스님 밀양 천축사	 보산스님 사천 다솔사
 순행스님 거창 보명사	 정수스님 영산 보현정사	 수전스님 부산 해안정사	 성공스님 영주 비로사	 대목스님 나주 문정사	 무상스님 하남 광덕사	 광성스님 광주 증심사	 지원스님 여수 보현사	

www.seonunsa.org

2016년 대학원 2년 전문과정 및 3년 연구과정

선운사 初期佛教 불학승가대학원생 모집

온전한 敎學과 그 實踐의 바탕은 敎祖 석가모니 부처님의 世界觀과 삶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기불교 공부의 수행의 필수적인 과정이자 지름길입니다. 초기 불전인 빠알리 경전의 바른 이해 없이는 대승불교의 승고한 이상도 뿌리 없는 나무거나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선운사 초기불교 불학승가대학원은 오랫동안 우리 교학과 수행 체계 가운데 잃었던 고리를 찾아 채움으로써 바른 수행자상을 정립하고 새 시대의 승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문을 열고, 제6기 전문과정과 함께 새로이 제3기 연구과정 신입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내용 | 기초빠알리語, 빠알리 經·律(Dhammavinaya), 인도불교사(부처님 생애, 교단·경전 성립) 및 특강과 아나빠나사미 수행

- 교수사 재언, 환성, 성문
- 응시자격 대학원 2년 전문과정
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 동국대 불교학부, 기본선원) 졸업자 및 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비구, 사미
- 대학원 3년 연구과정
전문교육기관(각 승가대학원) 졸업자 및 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비구
- 제출서류 대학원 2년 전문과정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1부
사진(반명함판) 2매
승려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각 1부
- 접수마감 2016년 3월 14일 월요일까지
- 원서교부 선운사 초기불교 불학승가대학원, 선운사 종무소, 선운사 홈페이지
- 원서접수 선운사 초기불교 불학승가대학원, 선운사 종무소(우편 및 방문접수)

- 전형일시 2016년 3월 16일 수요일(음 2월 8일) 오후 1시
선운사 초기불교 불학승가대학원 큰방
- 전형방법 필기 및 면접
- 입학인원 대학원 2년 전문과정 : 9명 내외
대학원 3년 연구과정 : 5명 내외
- 특전 입학지원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 후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지원할 경우, 선운사에서 2년과정을 이수하면 석사학위 취득가능
- 문의 승가대학원 063)561-1475, 종무소 063)561-1422
원감스님 010-8764-8810, 메일 : dltwjr1@hanmail.net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초기불교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언

(우)56452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선운사 초기불교 불학승가대학원

